

특집 / 풍년을 위한 영농설계 이렇게 세우자!

발농사

우리나라의 발면적은 851천ha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40%에 달하고 있으나 경사지(傾斜地)가 많고 유형별(類型別)로도 숙전비율(熟田比率)이 41.8%밖에 되지 않아 비옥도가 낮은 형편이다. 밭의 이용률은 '83년에 130.9%로서 일본이나 대만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고 그나마 밭에서의 식량작물재배가 절반 이상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소비도 고급화 내지 다양화(多樣化)되어 신선채소(新鮮菜蔬) 및 식용유지류(食用油脂類)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자급자족적 영농형태(自給自足的營農形態)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상품생산적영농형태(商品生產的營農形態)로의 전환기에 와 있음을 감안할때 발농사에서의 전작목 선정 및 합리적인 각부체계 도입은 소득증대에 지름길 이 될것임은 자명하다 할것이다.

特化作目 선택해 위험 줄이도록

호남작물시험장장 배 성 호

가. 작물의 선택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영농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로서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재배여건 충분히 고려

작목선정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적지적작(適地適作) 즉 지역적인 재배여건 특히 재배지의 지형과 토성, 비옥도, 관배

수시설등과 소비지와와의 거리가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내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목의 규모는 최소출하량(最少出荷量) 이상되게 조절되어야 한다.

재배기술·노동력등 감안

둘째로는 재배기술, 노동력의 양(量)과 질(質), 활용 가능한 농기계, 그리고 영농자재 확보능력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작물은 높은 수준

◇ 풍년을 위한 '85 발농사 설계 ◇

의 기술과 양질의 많은 노동력 그리고 고가(高價)의 자재가 소요되며 소득이 낮은 작물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실패(失敗)의 위험도가 낮으며 경영비도 적게 든다.

가급적 소득이 높은 작목선택

셋째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소득이 높은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개 작물의 년도별 과소(寡少) 또는 과

다생산(過多生産)에 의한 가격폭등(價格暴騰)과 폭락(暴落)의 악순환(惡循環)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의 위험부담경감(危險負擔輕減)을 위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83년산 주요 발작물의 표준소득(標準所得)을 표1에 열거하였는바 참고하기 바라며 그러나 비록 '83년에 소득이 높은 작물이라 할지라도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년도에 따라서 생산시기에 따른 가격변동(價格變動)의 기복(起伏)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작목을 선

<표 1> '83년산 주요 발작물 표준소득

(기준: 원/10a)

품 목	수 량 (kg)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 득	소득율	상품화율
맥 주 맥	296	157,367	65,715	149,194	91,652	58.2	95
옥 수 수(신품종)	644	191,831	78,121	207,400	113,710	59.3	87
대 두(단작)	146	114,551	48,113	149,585	66,438	58.0	67
발 양 파	3,381	251,208	148,934	333,686	102,274	40.7	88
발 마 늘	704	1,016,928	522,526	708,991	494,402	48.6	83
고 추(노지)	157	362,635	172,556	381,096	190,079	52.4	79
가 을 무 우	4,677	269,863	96,683	204,008	173,180	64.2	86
가 을 배 추	8,230	479,809	111,698	234,299	368,111	76.7	85
파	2,755	392,312	135,503	289,047	256,809	65.5	92
참 외(밭)	1,799	469,539	191,010	397,996	278,529	59.3	86
수 박(//)	2,510	662,138	172,000	370,084	490,138	74.0	89
참 깨(단작)	65	265,716	76,511	184,440	189,205	71.2	83
들 깨	83	89,708	35,726	137,058	53,982	60.2	73
땅 콩	141	258,535	115,568	248,480	142,967	55.3	87
발 유 채	200	78,930	61,067	181,878	17,863	22.6	91

(자료: 농촌진흥청)

<표 2> 양파의 년도별 월별 가격변동 상황

(단위 : 원/kg)

년도별 \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2	317	253	240	173	113	130	133	120	143	120	127	123
'83	153	113	100	117	77	60	67	70	70	93	100	107
'84	200	367	600	900	550	267	250					

(자료 : 농촌진흥청)

택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정부특화 작목 선택하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영농사업(複合營農示範事業)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참깨, 땅콩, 옥수수, 콩, 맥주보리, 유채, 호프, 양잠등 8개 특화작목(特化作目)에 대하여 가격예시(價格豫示)와 책임수매(責任收買)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작목을 선택함으로써 위험부담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윤작감안한 작형선택토록

밭 작부체계 선정시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밭에서는 논과 달리 수박, 고추, 참외, 땅콩등 대부분의 작물들이 연작(連作)의 경우 기지현상(忌地現象)을 초래하여 수량이 감소되고 풀질이 떨어지므로 윤작(輪作)을 감안한 작부형식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료분의 수탈·집적을 판단

둘째 전작물재배(前作物栽培)와 후작물재배(後作物栽培)시 비료분의 수탈(收奪)과 축적(蓄積)을 고려하여 두과작물(荳科作物)과 십자화과작물(十字花科作物), 또는 화본과작물(禾本科作物)과의 결합, 심근성작물(深根性作物)과 천근성작물(淺根性作物)의 배합으로 전후작물 재배를 통하여 표토층(表土層)와 심토층

나. 작부체계(作付體系)

작목의 선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작물의 조화있는 배합연결(配合連結)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일로서 어느 특정 작목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작물과 작물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경영 전체의 소득이 증대될 수

◇ 종년을 위한 '85 발농사 설계 ◇

(心土層)의 토양양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유축농업(有畜農業)에서 오는 부산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물재배를 통한 농가의 현금 수입(現金收入)이 연중 배분될 수

유축농업 부산물 강구해야

<표 3> 지대별 밭 작부체계 유형

지 대 별	지 대 구 분	작 부 체 계
중부답작지대	평 야 지	오이+가을배추 콩+마늘 참깨+알타리무우 고추단작
	중 간 지	참외+가을무우 풋배기옥수수+가을배추 콩단작
	산 간 지	풋배기옥수수+알타리무우 참깨+가을배추 고추단작
영호남답이작지대	평 야 지	고구마+맥주맥 참깨+마늘
	중 간 지	참깨+가을감자
	산 간 지	담배+가을무우 고추+시금치
동남부산간지대	평 야 지	보리+참깨 마늘+여름배추 콩단작
	중 간 지	참깨+시금치 담배+풋배기옥수수 옥수수
	산 간 지	풋배기옥수수+가을배추 담배+콩 단경기수박 감자단작

(자료: 농촌진흥청)

있도록 작부형식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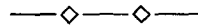
표 3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대별 밭 작부체계의 유형을 나타내었다.

라. 경지와 노동의 효율적 활용

우리나라와 같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가의 경영규모가 영세한 조건하에서는 경지의 이용율을 보다 높여 토지생산성(土地生産性)을 제고시켜야 하나 최근 농촌 노동력 부족 및 임금상등(賃金昂騰) 등으로 밭의 이용율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토지 생산성 증대가 둔화되고 농업부분의 잠재생산성(潛在生産性)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쌀, 보리 편중의 영농방식에 따라 5~6월과 9~10월에 노동력의 계절적 피크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밭작물 재배는 비교적 노동력을 적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절성을 고려한 작부방식의 채택과 함께 농기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므로써 토지이용도 증진 및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다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시설자재를 이용하는 시설재배(施設栽培)의 경우 농산물의 주년공급(週年供給)과 노동력의 배분(配分)을 참작하여 소득이 높은 작물의 선택과 더불어 축성재배, 반축성재배 및 억제재배 등으로 생산물의 출하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 경영과 소득면에서 내실(內實)있는 영농설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자급자족시대의 영농은 농가의 능력에 비례하여 생산물과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나 현대와 같이 상품생산적인 영농형태하에서는 작목선정에서 증산기술 및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주의 합리적 판단과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우리의 발농사도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조건을 감안한 적작목 선택(適作物選擇) 및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도입하여 적기 적량의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수지맞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